

해남군, 로컬푸드안정 공급체계 구축 박차

내년 9월 직매장 개설 목표...참여농가 교육 진행
소규모 농가 적극 참여 지속가능 농업 기반 마련

해남군이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앞두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나섰다. 해남군은 2일 “오는 20일까지 해남군 2030 푸드플랜 기반 조성을 위한 참여농가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완주로컬푸드 성공신화를 이끌었던 안대성 대표(전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와 이육근 전 완주 온고을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해남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중 교육은 소규모 이중하우스 사업 농가와 해남읍, 삼산, 화산, 현산, 옥천, 계곡, 마산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 1-2월에는 송지, 북평, 화원 등지에서 추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해남군 로컬푸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기본 작부체계와 연간 출하 계획을 세워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획생산 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집합교육 외에도 마을 및 농가 방문교육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가족·고령농들이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생산기반 구축,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직매장 개장을 목표로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계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농과 고령농, 가족농 등 소규모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농가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틀이 될 푸드플랜 사업이 초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경로당 방문 민생 투어

전동평 영암군수가 동절기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덕진면 영보리, 덕진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행정 실천에 나서고 있다. <사진> 특히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살피기에 나선 전 군수는 군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 100원 택시와 1천원 버스 경로당 부식비 등 맞춤형 복지시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 군수는 군정 3대 행정철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확인 행정’과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그리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행정’을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전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섬김행정, 서비스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강진 영랑생가 겨울 채비 강진군의 대표적인 초기건물인 영랑생가(강진읍 남성리·국가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와 백운동원림(성정면 월하리·명승 제115호)이 최근 이영을 새로 입히는 등 겨울 채비를 마쳤다. /강진군 제공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청정연안만 프로젝트 추진

강진군은 2일 “최근 강진군청 회의실에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2019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송욱 강진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정상동 고흥부군수 위생식 강진군의회 의장, 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 송우섭 고흥군의회 의장, 위동 장흥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득량만과 강진만에 연접해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같이 해 온 4개 군이 상생발전과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이날 4개 지역 군수와 의장들은 천혜의 환경과 잠재력을 지닌 득량만과 강진만을 보존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강진=정영록기자

‘맛의 도시’ 목포 음식점 이용객 만족도 높다

2천265명 설문조사...친절·맛·청결·가격 등 긍정 평가 71%
개선대책 마련·음식관광 인프라 구축 1천만 관광도시 도약

목포시가 최근 지역 음식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평을 받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2일 “지역 음식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1% 이상이 청결·친절·맛 등 전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북항 회센터와 평화광장 일원 등 관광 밀집지에서 음식점 이용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무작위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2천265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항목은 친절·맛·청결·가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1천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고령 연령층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체 방문객의 71%가 청결, 맛, 친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맛에 대해서는 80.7%가 만족을 표했다. 가격에 대해서는 61.1%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보통 평가도 35%로 적지 않았다. 또 주차 공간 부족, 1인 메뉴 및 유아 동반 시설 부족, 목포만의 특색 있는 메뉴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목포시는 앞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는 고객행위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및 특별 위생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옥 목포시 식품위생팀장은 “목포의 맛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음식특화거리 조성, 입식테이블 지원 확대, 깨끗하고 청결하며 믿을 수 있는 음식서비스 제공 등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목포시는 앞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는 고객행위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및 특별 위생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옥 목포시 식품위생팀장은 “목포의 맛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음식특화거리 조성, 입식테이블 지원 확대, 깨끗하고 청결하며 믿을 수 있는 음식서비스 제공 등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영광 ‘1388청소년지원단’ 정기회의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1388청소년지원단’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388청소년 지원단’은 청소년 안전망의 일부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발견·구조, 의료·법률, 상담, 멘토, 복지·보호, 자활지원 등 6개 하부 지원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1388청소년지원단 총 33명 중 15명의 단원이 참석했으며 올해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연계해 진행했던 ‘청소년보호활동 캠페인’ 및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활동(사진)에 대한 평가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1388청소년지원단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을 끝으로 올해 1388청소년지원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부단장으로 김준영 경위(영광경찰서 아동청소년계)가 선출돼 원복성 지원단장(남대문환경원)을 도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김동규기자



완도군,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평가 우수상

완도군은 2일 “환경부 주관 ‘2019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공동으로 수도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159개 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경영개선 및 서비스 실태 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상수관망까지 확대해 상수도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공동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평가를 포함,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으며 완도군은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재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올해 상반기 완도하수도처리장이 우수 시설로 선정된 데 이어, 상수도사업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해양치유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된 청정바다 보존을 위해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훈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DK-301] 강력 접착 도막 방수제
[DK-302] 초강력 다목적 혼합용 방수제
[DK-303] 녹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4] 회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5] 드림데칼 3
[DK-306] 탑코팅 수용성 투명 발수제
[DK-307] 균열 보수제
[DK-308] 황토리
[DK-1000] 드림탄
[DK-2000] 드림콘
[DK-3000] 슈퍼 드림을 골드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 · 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

CMYK